

과학기술자 블로그 운영사례 연구

A Study on the Blog Service for Scientists and Engineers

윤정선, 박보미, 최세미,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Jungsun Yoon, Bomi Park, Semi Choi, Sun-Hwa Hahn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요약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KOSEN에서는 과학기술자 블로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기존의 정형화된 서비스의 틀을 넘어 과학자 자신이 자유롭게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드러내며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케 하기 위한 시도이다. 2007년 4월 처음 개설한 이래 2007년 10월 현재 251개의 블로그가 개설되어 운영중이다. 블로그를 통해 전공지식에서부터 여행, 취미까지 다양한 콘텐츠들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블로그 서비스의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자 블로그 사용 실태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또한 블로그 운영의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여 서비스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KOSEN(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Network) started Blog service to encourage users' knowledge sharing and interaction between users. Since blog opened in April of 2007, 251 blogs have been made. We could collect diverse information from technical knowledge to private hobbies. We could find our blog's limitations and weakness, too. We analyze blog patterns and suggest strategies for service activation in this paper.

I. 서론

인터넷 사용자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블로그라는 서비스가 이제는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사용 목적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인터넷을 단순 정보검색뿐만 아니라 상호 교류를 위한 하나의 가상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오락, 동호회, 채팅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가 40% 이상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 또한 전체 인터넷 이용자중 약 36%가 블로그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이처럼 인터넷 사용자들은 사이버 커뮤니티를 통해 고립감을 벗어나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인터넷 활동의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는 것이다[3]. 공통의 관심사와 관계 형성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이버 커뮤니티는 기존 오프라인 커뮤니티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블로그 사용자들의 블로그 이용 의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 인지된 즐거움이며 이는 사적인 재미나 취미 같은 개인적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 또한 블로그를 만들고 운영하려는 자발적 동기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자기자신을 표현하려는 사람들에게 블로그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4].

블로거들은 그들의 감정이나 아이디어를 블로그에 올리고 때로는 뭔가 말할 것을 찾기 위해 고심한다.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고백적인 블로그에서조차도 그들의 독자들을 의식하여 드러낼 것과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을 조절하고 있다[4]. 블로그의 매력은 개인적인 것과 전문적인 것 사이에서 쉽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블로그가 미디어로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은 미국의 9.11 테러 때부터이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테러 소식을 블로그에 사진과 동영상으로 올린 것이 블로그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다. 편집되지 않은 기사 형식과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신선함이 블로그를 1인 미디어로서 재평가하기에 이른 것이다[5]. 미국에서는 블로그가 정치적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학자들이 여러 목적으로 블로그를 이용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 인문학 분야의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블로그는 학자들이 학계 내외부의 다양한 독자와 신속하게 상호작용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많은 학자들이 가장 전율을 느끼는 부분은 블로그의 글을 누구나 읽고 코멘트를 달 수 있기 때문에 독자와 쉽게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6].

이러한 현상은 과학의 일반 대중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과학기술자 집단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KOSEN

에 블로그 서비스를 도입한 사례를 소개하고 과학기술자 블로그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코센의 블로그

1.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코센

코센(www.kosen21.org)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 과학기술자들을 사이버 공간상에서 하나의 고리로 묶기 위해 과학기술부 지원 사업으로 구축되었다. 코센은 국내·외의 연구자들이 서로 원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외에 있는 과학기술자들은 코센을 통해 국내 과학기술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해외의 고급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내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국내의 과학기술자들은 해외 인력들이 제공하는 자료들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현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며, 국제 공동연구 파트너를 찾는 등 네트워크를 통한 다각적인 교류가 가능하다. 과학기술자 개인으로서는 코센의 정보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결집된 역량은 국내 과학기술계로 유입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코센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99년 7월 사이트를 처음 오픈하였으며 2007년 10월 현재 5만 3천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7].

2. 코센 블로그

과학자들이 코센의 서비스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회원들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기 위해 코센에 블로그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처음에는 회원들 간에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일인미디어로서 이미 네티즌들에게 친숙해진 매체인 블로그를 활용하고 인맥형성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블로그는 정보 자체보다는 과학기술자들간의 네트워크를 더 중시하는 코센의 기본 목표에도 잘 부합하는 매체이다.

코센 블로그는 개발된 이후 2007년 2월 16일부터 테스트 기간을 거쳤으며 일반회원에게는 2007년 4월 11일 공개되었다. 코센에서는 블로그를 파일럿 테스트 및 조기 활성화를 위해 일반 회원들에게 오픈하기 전에 코센전문가들이 먼저 개설하여 시범운영하도록 하였다. 코센전문가는 코센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 자문단 그룹이다. 2007년 현재 181명의 회원이 코센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테스트 기간 동안 총 50개의 블로그가 개설되었다. 코센전문가 시범 운영에 참여했던 몇 명은 현재까지도 인기블로그의 자리를 꾸준히 유지하는 등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2.1 코센 블로그의 기능

코센 블로그는 다른 포털사이트에 비해 디자인 기능은 좀 떨어지지만 기본 기능은 다른 블로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발되었다.

블로그를 처음 개설하는 회원들이 손쉽게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본인이 코센에서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자동으로 스크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였다. 또한 코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들에 대하여 블로그로의 스크랩이 가능케 하였다.

각 블로그에는 블로그 주인의 인기도와 활동도를 표시해주었다. 인기도와 활동도는 블로그 활동뿐 아니라 코센에서의 활동 실적을 포함하여 표기하고 있다. 또한 블로그 방문자가 블로그 주인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성을 표시하고 있다. 관계성 표시를 위해 방문자와 블로그 주인이 서로 이웃 관계인지, 같은 학교 출신인지, 사는 지역이 같은지, 같은 카페 회원인지, 전공이 같은지를 아이콘 형태로 표기해주었다. 이는 블로그 활동을 통해 회원들 간에 네트워크 형성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코센에서는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여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정보를 제공하면 마일리지 점수를 쌓을 수 있으며 누적된 마일리지는 코센리포트를 이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블로그에서는 아이템몰을 운영하여 회원들이 마일리지 점수로 배경화면 효과와 마우스 효과를 살 수 있게 하였다.

블로그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블로그를 개설한 회원의 경우에는 코센 사이트에서 회원 ID가 표기되는 모든 곳에 블로그 아이콘을 달아 놓음으로써 코센 사이트로부터 쉽게 연결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코센 메인 페이지와 웹진에 추천 블로그를 상시 표시하여 회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였다.

III. 블로그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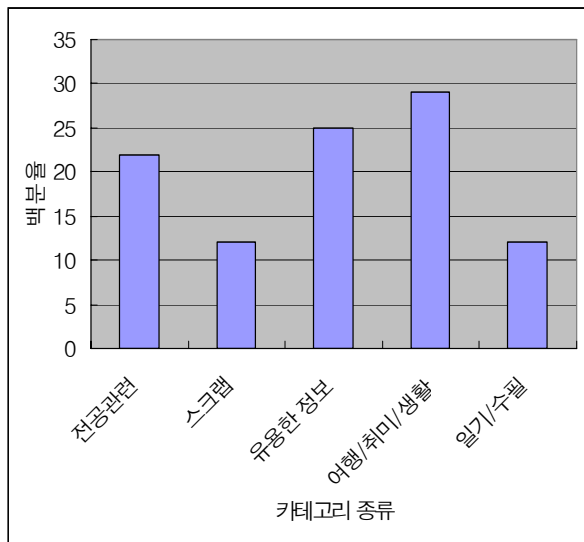
1. 운영 실적

코센블로그는 2007년 10월 24일 현재 총 258개가 개설되었으며 전체 포스팅 수 4,980개, 덧글수 1,921개, 월 평균방문수 6,257회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회원의 약 0.5%가 개설하였으므로 개설 비율은 매우 적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활성화 이벤트 실시가 없어도 꾸준한 비율로 신규 블로그와 포스팅이 올라오고 있다.

코센의 블로그는 다른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회원들이 자유롭게 블로그의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게 하였으나, 회원 그룹이 과학기술자이다보니 블로그의 주제나 인기태그가 자연스럽게 과학기술 분야로 모아졌다(그림 1).



▶▶ 그림 1. 코센 블로그 메인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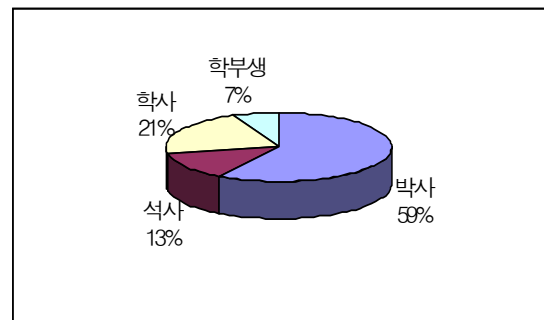
▶▶ 그림 2. 코센 블로그의 카테고리 분포

그러나 회원들이 각 블로그에 개설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면 그림 2와 같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행/취미/생활이 가장 높은 비율(29%)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용한정보와 전공관련 카테고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일기/수필과 스크랩이 12%로 동률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카테고리 분포와 실제 포스팅의 분포와는 차이가 있어서 전체 포스팅 수에서 스크랩한 글이 차지하는 비율은

5.3%에 불과하며 이중 상당부분은 코센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스크랩한 것이다. 이는 블로그에서 스크랩한 글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다른 포털사이트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자들은 다른 사람의 글을 스크랩하기 보다는 자신만의 글을 올리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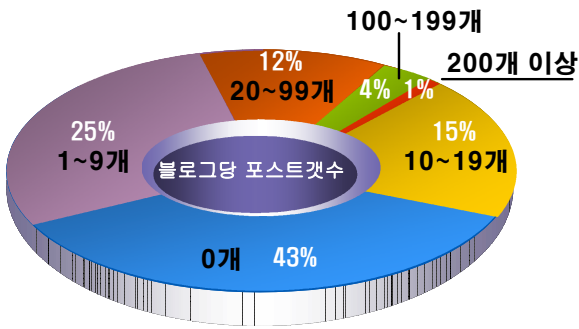
블로그 개설자의 학력분포를 보면 박사학위 소지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사, 석사, 기타가 그 뒤를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 그림 3. 블로그 개설자의 학력 분포

각 블로그 포스팅 수를 분석해보면 그림 4와 같이 게시글 없이 블로그만 개설해놓은 것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호기심에 블로그를 개설하긴 했는데 그 이후 전혀 글쓰기 활동이 없는 경우이다. 하지만 블로그 개설 시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 것이므로 10개 이상의 글을 게시한 블로거가 32%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고무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각 개인별 편차가 커서 많은 경우는 200개 이상의 글을 게시한 블로거도 있었다.



▶▶ 그림 4. 블로그당 포스팅 수 분포

2. 블로그가 코센사이트에 미친 영향

코센 블로거들의 행태를 관찰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첫째, 블로그 활동을 시발점으로 코센활동을 시작했다가 향후 활동범위를 넓혀 카페를 개설·운영하여 보다 큰 커뮤니티를 이끌고, 코센전문가로 활동하며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사례
- 둘째, 카페의 열성 회원이 블로그를 개설하여 개인미디어로 활발하게 이용하는 사례
- 셋째, 코센전문가가 블로그를 개설하여 자신의 연구 분야 자료를 게시하는 등 전문가 블로그로의 한 모델로 역할을 하는 사례

따라서 블로그가 코센의 다른 서비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회원들의 다양한 이용패턴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3. 블로그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

과학기술자 블로그를 6개월 정도 운영한 결과 블로그 서비스 운영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별도의 활성화 이벤트 없이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블로그가 운영되도록 하였으나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블로그 비활성 원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보았다.

- 첫째, 과학기술자들은 현업에 바빠서 블로그를 운영할 심적 여유가 없으며 필요성을 못 느낀다. 연구 외에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을 여력이 없다.
- 둘째, 다른 집단에 비해 폐쇄적인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이웃을 맺고 댓글을 달거나 찾아온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데에 약하다.
- 셋째, 다른 집단에 비해 무취미하거나 글쓰기에 약한 경향이 있다.
- 넷째, 코센 블로그 서비스의 사용 편의성이 떨어진다.

처음 세 가지의 원인은 과학기술자들의 성향과 관련된 것이므로 쉽게 극복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블로그가 코센 사이트에 미친 영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소수의 블로그가 만들어 내는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마지막 원인은 운영진의 노력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이다.

블로그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첫째, 회원들에게 블로그의 존재, 블로그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알린다. 블로그의 글 중 좋은 글은 웹진을 통해 기사화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스타 필진을 스카웃하거나 우대한다.
- 셋째, 태그 달기 문화를 정착시켜 코센 사이트의 다른 정보와 통합 검색이 가능케 한다.
- 넷째, 활성화 이벤트 및 우수 블로거 시상 제도를 만든다.

위의 활성화 전략을 구사하여 꾸준히 노력한다면 보다 활성화된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III. 결 론

이상에서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코센의 블로그 서비스 운영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6개월여의 운영기간을 통해 블로그 서비스 운영이라는 것이 녹록한 일이 아니라는 깨닫기도 했으며, 반면 나름대로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었다. 코센은 과학기술자라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다. 다학제 연구의 중요성이 날이 높아져가는 이 시대에 동료 과학기술자들과의 교류는 필수적이다. 코센 블로그는 보다 밀도 깊은 과학기술자들과의 교류가 가능케 해주는 공간이다. 코센 블로그는 과학기술계에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자가 잘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블로그 오픈 전 파일럿테스트에 참여한 42명중 단 두 명만

이 이전에 블로그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다. 이는 블로그 활동의 경험이 있는 과학기술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 포털 서비스에 비해 후발주자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코센은 블로그 서비스의 도입으로 진정한 과학기술자네트워크 포털로서 거듭날 수 있었다.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인 코센만이 가지는 강점을 활용해 코센 사이트와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블로그 개설 숫자와 포스팅 수는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활성화 전략의 실행을 통해 한차원 수준 높은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김준우, 김연수, 박천웅, “블로그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제29권, 제3호, pp.96-102, 2006.
- [2] 한국전산원, 인터넷 백서, 2004.
- [3] 박지영, “젠더(Gender) 차이에 따른 블로그(blog) 이용 동기와 행태에 관한 연구:<싸이월드> 사례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학술대회, 2004.
- [4] Bonnie A. Nardi, Diane J. Schiano, Michelle Gumbrecht, and Luke Swartz, “Why We Blog”, Comm. ACM, Vol. 47, No. 12, pp. 41-46.
- [5] 김지수, “블로그의 사회문화적 진화와 이슈”, 정보통신정책, 제16권 제8호, 통권 346호, pp.18-36.
- [6] David Glenn, “Scholars Who Blog”,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June 6, 2003.
- [7] 윤정선, “KOSEN이란?”, 지식정보인프라, 통권 25호, pp. 23-25, 2007.